

우리말 담화표지 ‘자’ 고찰

김 영 철(전북대)

1. 서론

본고는 우리말 담화표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고 다양한 계층에서 두루 사용하는 담화표지 ‘자’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¹⁾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언어는 크게 언어형식과 언어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정한 언어형식에 언어의미가 결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²⁾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로서 ‘화자, 청자, 시간, 장소, 공간, 발화에 관련된 음성 및 구조적, 통사적 특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는 명제적 의미로서 언어와 함께 언어외적인 다양한 상황정보가 활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

1) 최현배(1989:608-609)는 ‘자’를 ‘피임, 부름’과 같은 의지의 앞머리를 들어내는 의지적 느낌씨 중에서 ‘추어줌’과 ‘피임’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서정수(1996:792)는 ‘자’를 간투사로 보고 그 의미 내용에 따라 ‘추어줌’과 ‘피임’으로 나누었으며, 남기심/고영근(1986:176)에서는 ‘자’를 발화현장에서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적 감탄사’로서 ‘독려’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언어형식은 ‘음소-음성-음운-형태소-단어-어절-구-문장’ 등을 말한다.

고자하는 의도는 맥락에 따라 ‘특정한 낱말의 반복 활용, 생략’ 등에 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달 하려는 명제적인 정보나 명확한 의미가 없으며 담화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담화표지도 빈번하게 사용됨을 살필 수 있다.³⁾

일상의 대화에서 담화표지의 사용이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 장애 요소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담화 표지의 사용이 화·청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그들이 속한 언어 사회에서 지역,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고 활용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담화 상에서 담화의 결속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⁴⁾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iffrin(1987)에서 담화표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요소로서 발화의 단위를 묶어주는 요소이다”고 하였는데 발화의 단위란 화행 뿐만 아니라 문장과 그 보다 작은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담화 표지가 발화문의 처음이나 중간 또는 끝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서 담화표지의 의미는 발화문의 내용과 결합하여 사회적 또는 표현적 의미를 제공하면서 담화에서의 연결적 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한규(1996)에서 담화 표지어는 “그것이 나타나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 의미 또는 진리조건적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말하는 이의 믿음, 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모든 언어적 형태이다”고 밝히고 있다.

임규홍(1996)에서 모든 담화표지는 그 담화표지가 가지고 있는 기원적 어휘의미를 기저로 하여 그것이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면서 점점 상당히 추상적

3) 김순자·이필영(2005)의 ‘담화표지의 습득과 발달’에서 감탄사 담화표지로 ‘어/아, 으, 음, 예, 야, 글썄, 자’ 등의 형태가 출현 양상을 보이는데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어/아’이며, 이들은 다른 감탄사보다 사용 인원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새로 나타나지만 사용 인원이 적어 초등학교생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 형식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4) 담화표지는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실현됨을 살필 수 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즉 ‘감탄사, 관형사, 동사, 대명사, 부사, 용언, 조사’ 등의 품사들이 담화표지로 실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나 절 즉 ‘동사구나 문장’ 등이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고 심리적인 복잡 다양한 담화효과를 가진 담화표지로 변형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담화 문법론 차원에서 논의되는 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담화(입말)에서만 실현되는 표지이다. 즉 담화라는 독특한 실현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둘째,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 즉 형태적으로 접사가 결합되거나 어형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셋째,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다. 즉 담화표지는 문법적으로 다른 성분과 결속하지 않는다. 넷째, 쓰임에서 공간적·계층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즉 어떤 담화표지가 성별이나 연령, 다양한 사회적 계층, 그리고 공간적으로 두루 쓰인다. 다섯째, 사용이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담화표지가 아무리 임의적일지라도 그것이 담화 상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담화표지는 분명 어떤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섯째, 나름대로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한다. 일곱째, 모든 담화표지는 원래 어휘적 의미에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영옥(2002)에서 담화표지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⁵⁾

요컨대 담화표지란 의미적 차원에서는 특별한 어휘적 의미가 없어서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도 작용하지 않으면서 규칙적인 문법 기능도 없는 언어형식이다. 통사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장 내에서 출현 양상도 상당히 자유롭고 비규칙적이며 수의적이지만,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요소를 말한다.

우리말 가운데 많이 쓰이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 ‘자’에 대한 개별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선희(1995)의 ‘담화표지의 의미연구’에서 담화표지 ‘자’를 ‘글썄, 참, 아니,

5) 전영옥(2002)에서 담화표지의 특징으로 첫째, 실현 환경은 구어 담화에서 실현되고 둘째, 실현 형식은 여러 언어 형식이 담화표지로 사용되며 셋째, 운율적 특징으로는 억양, 휴지와 관련이 있다. 넷째, 형태적 특징으로는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고 다섯째, 통사적 특징으로는 문장의 다른 성분에 독립적이며 필수성분이 아니다. 여섯째, 의미적 특징으로는 어휘의 명제적 의미에서 변이되었으며 일곱째, 화용적 특징으로는 다양한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뒤, 말이다, 그래, 암, 음, 천만에’ 등과 같이 서법 감탄사의 범주로 분류하면서, 이 담화표지들은 그 자체의 내재적 의미가 없거나 또는 본래 있던 어휘적 의미가 소멸된 것으로서 단지 발화상의 화맥에 의한 화용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승신(1997)은 간투사 ‘자’가 발화의 보조기능으로서 독립적인 발화를 이루지 못하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쓰이는 ‘자’는 언제나 화자가 제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며, 그것을 제시하는 행위가 따라야 하지만 발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자’의 경우에 화자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 발화에 나타나는 내용이 된다. ‘자’는 화자가 제시하는 발화 내용에 따라 청자가 따라 줄 것을 바라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화자가 원하는 어떤 행동으로 청자를 이끌려는 태도를 제시하고, 그 행동의 내용을 담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⁶⁾

서태용(1999)의 ‘감탄사의 담화기능과 범주’에서 ‘자’를 의지감탄사의 범주에 넣었으며, 명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하고 있다. ‘자’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과 함께 쓰일 수 있고, 반드시 명령문과 호응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존대와 무관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영옥(2002)은 억양 단위의 시작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로는 ‘자, 아니, 글썄, 근데, 근까’ 등이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발화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의 기능은 첫째, 발언권을 획득하여 자신이 발화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둘째, 화제를 시작하고 진전시키고, 전환시키면서, 화제를 마무리한다는 신호를 청자에게 주는 것. 셋째,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넷째, 청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규홍(2005)은 국어 담화 표지 ‘자’에 대하여 통사적인 특징과 담화 기능을 연구하였다. 통사적인 특징을 ‘높임 제약, 서법 제약, 시제 제약, 이동 제약’

6) 오승신(1997:61)에서 ‘자’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거나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경우에 쓰여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이 때 화자와 청자는 제시자와 피제시자의 관계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담화 기능으로는 ‘요청, 바뀔, 대행, 시선끌기’ 등이 있으며, ‘요청’은 기저 기능이고 ‘바뀔, 대행, 시선끌기’는 이차적 기능임을 밝히고 있다.

담화표지 ‘자’는 국어사전에서 명사, 감탄사 등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그 개별적 기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자’에 대하여 그 특성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자’에 대하여 간략히 살피고, 3장에서는 담화표지 ‘자’가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양상과 그 기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4장은 결론으로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담화표지인 ‘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녹음이나 녹화 또는 전사된 문헌이나 문학 작품 등을 활용하여 특정 언어의 사용양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화자, 청자, 시간, 공간, 상황 등이 긴밀하게 결합된 요소로서 그 표현 자체가 어휘, 의미, 통사적인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실제적으로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현대단편소설, 한국구비문학대계,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였다.⁷⁾

본고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 빈도수가 많은 담화표지 ‘자’에 대한 개별 담화표지 연구에 일조하고, 또한 우리말 구어의 특징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⁸⁾

2. 담화표지 ‘자’의 특성

2장에서는 담화 상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 ‘자’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

7) 구어는 ‘축약, 생략, 자유로운 어순, 방언, 은어’ 등 음성 언어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가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맥락적인 차원에서 상황에 맞는 의미를 교환할 수 있다.

8) 국립국어연구원(2002)에서 발간한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통계를 보면 감탄사로서 ‘자’는 58개의 개수와 181회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사용 양상은 ‘문학, 교양, 교재, 대본’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구어에서 6번의 사용과 신문에서 1번의 사용은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펴보고자 한다.⁹⁾ ‘자’는 문장 또는 담화 상에서 명사, 감탄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¹⁰⁾

첫째, ‘자’는 명사로서 기능을 한다.

(1) 가. **자**로 잦 듯 정확하다.

나.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한** 자나 들어갔다.

예문 (1 가)에서 ‘자’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 빈틈이 없고 매우 정확한 의미를 ‘자’에 비유하여 사용한 어휘이고, (1 나)의 ‘자’는 피곤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인지하기 쉽고 빠른 신체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명사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자’는 감탄사로서 기능을 한다.

(2) 가. **자**, 출발합니다.

나. **자**,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 **자**, 이것 봐라?

예문 (2 가)에서 ‘자’는 남에게 어떤 행동을 권하거나 재촉할 때 하는 말이고, (2 나)의 ‘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말이며, (2 다)에서는 좀 안타깝거나 의아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는 혼잣말을 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이다.

담화표지 ‘자’는 명령이나 청유의 종결어미와 호응이 자연스럽다.

(3) 가. 지금 밖에 비가 내립니다. **자**, 우산을 준비하세요.

9) 신지연(1988)에서 간투사를 형태적 특성에 따라 감정적 간투사와 의지적 간투사로 분류하였는데, ‘자’는 의지적 간투사 중 명령적인 것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지적 간투사는 발화 현장에서 상대방을 의식하며 발화하는 것이므로 대개 그 발화의 발화수반효력이 청자에게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때 의지적 간투사를 동반한 문장은 기술적 정보 이외에 대인적 정보까지 가지게 되며 따라서 청자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상대 높임법 체계를 가지기도 하고, 의지적 간투사는 명령문, 청유문과 어울리며 화자의 의도가 미치는 시점은 항상 현재이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10)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을 차용하였음.

나. **자, 자**, 운동장에 가서 뛰어 놀아라.

예문 (3 가, 나)의 ‘자’는 청유나 명령의 종결어미와 호응을 통하여 화자가 제시하는 행동으로 청자를 이끌려는 청유문이나 명령문을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담화표지 ‘자’는 현재 시제만 해당할 뿐 과거나 미래와는 어울릴 수 없다.

(4) 가. 지금 밖에 비가 내립니다. **자**, 우산을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나. **자, 자**, 운동장에 가서 뛰어 놀았을 텐데.

예문 (4 가, 나)에서 문맥상 ‘과거’나 ‘미래’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담화표지 ‘자’와 어울리면 어색하고 불분명한 의미를 갖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담화표지 ‘자’는 시제상 과거나 미래와 호응이 아닌 현재시제와 어울려야만 의미적으로 정확하고 통사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감탄사의 기능을 하는 ‘자’가 담화표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형태상으로 불변화사이어서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가. **자**, 출발합니다.

나. ? **자**이/자가/자을/자를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 ? **자**하고/자으로 이것 봐라?

예문 (5 가)의 담화표지는 형태적으로 고정성을 가져서 (5 나, 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되거나 다른 형태로 대체되지 않는다. 즉 담화표지가 문장이나 담화 상에서 활용이나 곡용을 하면 비문법적이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 문장의 다른 성분과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분이다.

(6) 가. **자**로 켜 둔 정확하다.

가. ?로 켜 둔 정확하다.

나.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한** 자나 들어갔다.

나.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 자나 들어갔다.
 다. **자**로 왕골을 먹이다.
 다. ?로 왕골을 먹이다.

예문 (6 가, 나, 다)의 문장에서 ‘자’가 생략되면 (6 가’ 나’ 다’)의 문장처럼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여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없다. 즉 문장에서 일부 성분이 생략되거나 빠지면 통사적인 면과 의미면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7) 가. **자**, 출발합니다.
 가’. ? 출발합니다.
 나. **자**,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 ?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 **자**, 이것 봐라?
 다’. ? 이것 봐라?

예문 (7 가, 나, 다)의 문장에서는 ‘자’를 생략하였지만 문장 구성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화표지 ‘자’는 필수성분이 아니고 독립성분으로서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수식을 받지 않기에 생략이 가능한 잉여적인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발화의 어두에 쓰인다.¹¹⁾

(8) 가. **자**, 출발합니다.
 가’. 출발합니다. **자**.
 나. **자**,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 **자**, 이것 봐라?
 다’. 이것 봐라? **자**.

11) 담화표지가 표현된 문장의 위치나 문맥에 따라 화자의 심적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문 (8 가, 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표지 ‘자’는 발화의 어두에 쓰이고 있다. 발화의 어두에 놓여 자연스러운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8 가·나)의 발화도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 다)는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담화표지 ‘자’는 발화의 어두에 놓여야만 자연스런 언어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담화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어조의 장단고저나 반복에 의하여 화자가 의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적인 색채를 표현할 수 있다.

(9) 가. 자↑ 출발합시다.

나. 자↓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 자: 이것 봐라?

라. 자자, 출발합시다.

예문 (9 가)의 ‘자’는 ‘상승어조’로서, 화자가 청자나 청중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재촉의 강도를 강하게 하여 ‘서두름’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9 나)의 ‘자’는 ‘하강어조’로, 타인들에게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의도가 강한 언어표현이며, (9 다)의 ‘자’는 장음 표현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 의아스럽고 당황스러울 때 또는 자신에게 독백의 형식으로 혼잣말을 할 때 사용함을 볼 수 있다. (9 라)의 경우에는 담화표지 ‘자’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출발에 대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의 특성으로는 첫째, 형태상 불변화사이어서 활용과 곡용을 하지 않는 경우, 둘째, 문장으로부터 통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셋째, 주로 발화의 어두에 쓰일 수 있는 경우, 넷째, 어조의 장단고저 등에 의하여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자’는 담화표지의 특성에 부합되므로 담화 상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담화표지 ‘자’의 담화기능

3장에서는 담화표지 ‘자’의 담화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문화, 역사 등 삶의 요소와 상호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담화표지는 화자와 청자, 담화의 상황, 그리고 담화표지가 사용되는 화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양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으로 담화상에서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1. 출현의 위치

담화표지 ‘자’는 일반적으로 발화의 첫머리에 온다. 이는 담화표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 (10) 가. 자,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자,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 ?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자,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자, 벌어질 것입니다.
바. ? 기대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예문 (10 가)의 담화표지 ‘자’는 잠시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하여 청자나 청중들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의미에서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발화로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예문 (10 나, 다, 마)도 빈도수는 낮지만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로는 크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문 (10 라, 바)의 경우에는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실현의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로, 그 언어사회의 통념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의 형식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요컨대, 담화표지 ‘자’는 발화의 첫머리에 주로 출현하여 화제의 시작이나

12) 임규홍(2005:110)에서 담화표지 ‘자’는 다른 독립어보다는 후행 정보와 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문미에 올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전달하는 언어 형식임을 알 수 있다.

3.2. 다양한 담화표지와 결합 관계

담화표지 ‘자’는 다양한 담화표지와 결합이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함을 살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담화표지이지만 여타 담화표지에 비하면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의 양상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살필 수 있다.¹³⁾

- (11) 가. ? (어, 아, 음, 응, 아니, 야, 뭐, 그래, 아이, 예) + 자
나. ? (응, 아니, 예, 그렇지, 아니야, 그럼, 그지, 뭐야, 네, 글썄, 그죠) + 자
다. ? (어, 음, 뭐, 그래, 참, 예, 엄, 으음) + 자
라. ? (이, 그, 저, 이것, 저것, 그것) + 자
마. 자+자

예문 (11)에서 담화표지 ‘자’와 결합할 수 있는 다른 담화표지는 매우 제한적임을 살필 수 있다. (11 가)는 감정 감탄사와의 결합, (11 나)는 의지감탄사와의 결합, (11 다)는 형식 감탄사와의 결합, (11 라)는 지시어와의 결합인데 일반적으로 구어나 문어 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다만, (11 마)에서 담화표지 ‘자’의 반복적인 결합에 의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인 ‘재촉, 명령, 요청, 독려’ 등의 의미를 갖는 언어표현으로 청자에게 사용되는 언어형식임을 엿볼 수 있다.¹⁴⁾

요컨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담화표지 ‘자’는 다양한 다른 담화표지와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3) 서상규·구현정(2005)의 ‘한국어 구어 연구(2)’에서 감탄사 유형과 빈도의 목록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14) 다양한 담화표지와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담화의 결속력과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태도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3. 담화기능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담화표지 ‘자’는 담화 상에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살필 수 있다.¹⁵⁾

‘화제를 시작하는 기능,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 청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집중 기능, 시간 벌기’ 등의 다양한 담화기능을 살필 수 있다.

3.3.1. 화제 시작

담화표지 ‘자’는 화제나 담화의 시작을 알리는 언어 형식으로서 기능을 갖는다. 즉, 화자가 특정한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화제나 담화의 시작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12) 가. “자, 이게 우리 팽이 한 달 월급이다. 허허허허, 팽이 월급 주는 놈은 이 세상에 이 박제호 한 놈뿐일걸? 허허허, 제기할 것, 허허허허.”<탁류, 272>

나. “자,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 번 이야기해 보소”<배따라기>

다. 자, 그러면 이 끝짜기에서 아까 그 이야기의 꼬리를 마저 지을까<광화사>

예문(12 가)의 ‘자’는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한 것보다 적은 월급에 어이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화제의 시작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12 나)의 ‘자’는 화자가 청자에게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화제를 시작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으며, (12 다)의 ‘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기존의 화제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자’는 발화의 첫머리에 나타나며 화제나 담화를 시작하는 언어형식으로 사용됨을 살필 수 있다.

15) 임규홍(2005)에서 담화표지 ‘자’는 그 자체가 독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발화 의미에 따라 다양한 담화 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3.3.2. 화제 전환

담화표지 ‘자’는 기존의 화제에서 새로운 화제로 전환을 하는데 사용한다. 화자가 주도적인 위치나 입장에서 담화를 진행하면서 담화의 내용이 바뀌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담화표지로서 ‘자’가 화제 전환의 역할을 담당한다.¹⁶⁾

- (13) 가. 그래도 승재는 생각이 들어 별떡 일어선다. “자, 그건 숙제루 뒤두구 서…… 나허구 여기서 우선 저녁이나 먹더라구?” <탁류 423>
나. “저기 앉아 계시는 하선쌤한테서 자네 애긴 늘 듣고 있었지. ……자, 하선생 맥주는 술도 아니니까 한잔 들어봐요.<무진기행>
다. “결국 그 돈은 다 쓴 셈이군요……자, 이젠 약속이 끝났으니 우린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서울, 1964년, 겨울>

예문 (13 가)에서 ‘자’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새로운 화제로 전환이 필요할 때 담화표지 ‘자’를 사용하여 기존의 화제에서 후행의 새로운 화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13 나)에서도 ‘자’를 사용하여 기존의 화제에서 새로운 화제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정보나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13 다)의 ‘자’ 역시 선행 발화를 마감하고 새로운 후행 발화를 통하여 화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자’는 기존의 선행 발화를 끝내고 새로운 화제의 후행 발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화제 전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3.3. 주의 집중

담화표지 ‘자’는 담화를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인 ‘주의집중’ 기능을 한다. 즉,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발화 내용을 보다 호소력 있게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에

16) 화제를 전환할 때는 화자가 청자에게 그들이 속한 언어사회에서 상호간 통용할 수 있는 어떤 언어 형식을 동원하여 화제를 바꾼다는 신호를 보내야 화자와 청자 사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가. “그런데 조금 늦더라도 이 논배미는 마자 매고 참을 먹어야겠군. **자**, 바짝---팔대에 힘을 넣어서. 저런, 봉구 뒤에는 벼가 더러 부러졌군, 아빨싸!”<사하촌>
- 나. 어떠한 운명이 다시 전쟁을 부채질하더라도 말이야. **자**, 형, 가아안-다아. 너무도 순간. 동생은 나뭇가지 대신에 벼랑에 손끝을 의지한 채 매달렸다.<유서>
- 다. “여봐 그렇게 덮어놓고 서둘지만 말고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라고. **자** 차근차근. 그래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려요.<꿈꾸는 인큐베이터>

예문 (14 가)에서 담화표지 ‘자’는 새참을 먹기 전에 일을 마무리 하여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일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담화표지를 사용하였고, (14 나)의 ‘자’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하여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담화표지 ‘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청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볼 수 있다.¹⁷⁾ (14 다)의 ‘자’ 역시 주의집중을 통하여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담화표지가 사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다음에 언급되는 후행 정보 및 발화에 대하여 청자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담화표지 ‘자’ 사용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3.3.4. 시간 별기

담화표지 ‘자’는 담화를 진행하는데 적절한 다음 발화를 조정하는 언어형식으로서 시간 별기의 기능을 담당한다.¹⁸⁾

- 17) 청자에게 담화 내용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화자가 원하는 발화의 목적이나 의도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할 수도 있다.
- 18) 대화의 진행 조정의 기능은 일상생활이나 라디오 또는 TV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 양상을 참고로 하였다.

(15) 가. 자, 찬성하시는 방청객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봤고, 이제 자, 반대하시는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겠지요?<TV토론 중에서>

나. 자, 어느 분이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남자 분이 먼저, 아니면 자, 여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다. 고객님, 이 제품은 자, 가격도 저렴하고 자, 기능도 다양합니다.<휴대폰 대리점>

예문(15 가, 나, 다)의 담화표지 ‘자’는 진행되는 발화의 중간 중간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상황과 의도에 적합한 후행 발화를 생각 해내려는 의도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담화표지 ‘자’는 담화 상에서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담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적합한 후행 발화를 발화하기 위하여 시간별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담화 상에 나타나는 담화표지는 단순하게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다양한 우리말 담화표지 중 담화 상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담화표지 ‘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담화표지는 일상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화·청자가 속한 언어사회에서 지역, 사회, 문화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인 색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담화의 결속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어형식이다.

담화표지 ‘자’는 빈번하게 담화 상에서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을 달리함을 엿볼 수 있다. ‘자’는 문장에서 명사, 감탄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리고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자’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담화의 결속력과 의

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담화표지 ‘자’ 담화기능은 첫째, 발화의 첫머리에 출현하여 ‘화제나 담화를 시작’하는 언어형식으로 사용하고, 둘째, 기존의 선행 발화를 끝내고 새로운 화제의 후행 발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화제 전환’의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주의집중’의 기능으로서,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발화 내용을 보다 호소력 있게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담화표지 다음에 언급되는 후행 정보 및 발화에 대하여 청자들의 관심과 흥미,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 넷째, ‘시간별기’의 기능으로, 담화를 진행하는데 적절한 다음 발화를 조정하는 언어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담화 상에서 화자가 청자나 수신자에게 담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적합한 후행 발화를 발화하기 위하여 시간별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감탄사의 기능을 가진 ‘자’는 의미적,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연구원(2003), 현대국어사용 빈도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김선희(1995) 담화표지의 의미연구. 목원대 논문집 27집. 5-26.
- 김순자·이필영(2005) 담화 표지의 습득과 발달, 국어교육 118, p149-180.
- 김영철(2006), 국어담화표지 ‘어’ 고찰, 국어문학41집, 국어문학회.
- 남기심·고영근(1986),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구어연구(2),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태용(1999),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동악어문논집 35집, 동악어문학회.
- 신지연(1988), 국어간투사의 위상연구, 국어연구83, 국어연구회.
- 오승신(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말 2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연구, 담화와인지3,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1996), 국어담화표지 ‘인지’에 대한 연구, 담화와인지2,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2003),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표지 사용 모습, 어문학 83호. 93-113. 한국어문학회.
- 임규홍(2005), 국어 담화 표지 ‘자’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 전영옥(2001),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전통화법과 화법교육.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역락.
- 최현배(1989), 우리말본, 정음사.
- Schiffrin(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s】

A study on the discourse function of ‘JA’ to discourse mark in Korean language.

Kim, Young-cheo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a characteristic of ‘JA’ as an interjection and the function of it as a discourse mark in everyday Korean language.

‘JA’ function as an interjection in sentence, also its faculty is changed its meaning and function by the intonation or situation.

The discourse function of ‘JA’, the discourse mark is various as “the beginning of discourse, diversion of topic, concentrate of attention, play the time” by the situation.

‘JA’ is unnecessary in meaning of sentence, but it is a necessary linguistic form to communicate the purpose or intention of discourse to the listener with effective.

Key Words : discourse mark, discourse function.

이 논문은 2008년 5월 6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본고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감탄사 ‘자’에 대한 특성과 함께 담화표지로서 담화 상에서 어떠한 담화기능을 담당하는가를 고찰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담화표지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명사로서 ‘자’의 특성과 함께 감탄사 ‘자’가 담화표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담화표지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3장에서는 담화표지 ‘자’의 출현의 위치와 다른 담화표지와의 결합관계,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기능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자’의 담화기능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화제를 시작하는 기능,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 청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집중 기능, 시간 벌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감탄사의 기능을 가진 ‘자’는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담화표지, 담화기능.